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5 기후에너지

어워드서 우수지자체 선정

고창군이 목포MBC 주관 '2025 기후에너지어워드 공모전'에서 올해 기후에너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후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알리기에 앞장섰다.

지난 19일 열린 시상식에서 고창군은 생활 속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친환경 교통·에너지 인프라구축, 주민참여형 기후행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후 에너지 정책 성과를 인정 받았다.

또한 국내 최초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최근 3년간 여러 생태계복원사업 등 다방면으로 효과를 거뒀다.

특히,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탄소저감 프로그램을 확대한 축제장 분리배출 교육,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하던 새 텀블러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내 자원순환·탄소저감 강화 기후위기 대응 의식을 확산 시켰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영예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차별화된 시책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타 지자체에 배정된 물량 중 남은 예산을 발 빠르게 확보해 100대분의 국가 예산을 추가로 가졌다는 점이 주요했다. 그 결과 정읍시의 전기차 보급률은 3.6%를 기록, 전북 평균 보급률인 3.0%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기록을 세웠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근로계약 기간 조정 통해 65명 퇴직금 보장 기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조기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져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계약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병행해 행정의 효율성도 놓치지 않을 방침이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근무 기간 조정은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지역 사회의 올바른 고용 문화 정착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줄포면, 지역특화재생사업 250억원 최종 선정

부안군 도시재생 8번째 성과... 누적 마중물 사업비 703억원 달성

부안군은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줄포면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2018년 매화동류마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총 8건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누적 마중물 사업비 703억원을 확보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도시재생 공모 대응력과 현장 실행 역량을 동시에 갖춘 대표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이번 줄포면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지난 7년간 축적해 온 군 도시재생의 경험과 성과가 면 단위 지역으로 확장·고도화된 사례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 고유자원을 결합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2018년 매화동류마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역량 강화,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등 도시재생의 기초를 구축했다. 이후 도시재생 인정사업(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향교지구 우리동네살리기, 줄포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재생 구조와 운영 중심 도시재생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줄포면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이러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줄포면 노을빛 정원, 탐사르습지, 갯벌치유센터 등 생태·경관 자원을 군의 위계이션·정원문화 정책과 연계해 체류형 웰니스 중심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줄포 웰케이션센터 조성, 줄포 마을호텔 조성, 줄포시장 문화광장 조성, 줄포라운지 조성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대가 동시에 기대된다.

군은 전북자치도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도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해 자연환경과 치유·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도시재생 전략을 줄포면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선정했고 줄포면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담아낸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장관과 부안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접해 온 만큼 부안이 가진 생태·경관 자원과 생활 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며 "줄포면처럼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해 웰니스와 위계이션을 결합한 사업은 쇠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머무르고 일하며 쉬는 체류형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정책포럼 개최

고창군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발전 전략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고,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

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했다.

고창군이 지자체 최초로 주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로서, 주민

참여를 중심에 둔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향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북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우뚝

정읍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제시하며 도내 최고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임을 입증했다.

정읍시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며 도내 최고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임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부안군에서 열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에서 정읍정읍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이하 정읍조합) 윤주리 사무국장이 도시사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읍시는 단연 돋보이는 성과로 주목받았다. 먼저 16일 진행된 유공자 표창식에서 윤주리 사무국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정읍 원도심 재생에 기여하고 주민 주도형 모델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도시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진행된 성과공유 세션에서는 정읍조합의 성공 노하우가 공유됐다. 윤 사무국장은 앞서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 분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던 우수사례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무주, 고창, 부안, 익산, 전주 등 타 지자체의 발표도 이어졌으나, 도시사 표창에 이어 국토부 장관상 수상 사례까지 발표한 정읍시의 사례가 참석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정읍조합이 도시사 표창 수상뿐만 아니라 전북 전역에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쇠퇴해가는 원도심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낸 이 훌륭한 사례가 정읍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희망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연지시장' 활력 찾기 밑그림 그려

노후된 시장 환경 개선·상권 활성화 위한 청사진 마련 노력

정읍시가 노후화된 연지시장의 목은 과제를 해결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구청회의실에서 '연지시장 정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화수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용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지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현재 연지시장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화재 위험, 상권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 기초 현황 분석 계

획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용역의 핵심 과제로는 △기초 현황 조사 및 상권 정밀 분석 △개발 방식별 절차 및 장단점 비교 △경계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상인·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의 정비계획(안) 수립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해관계자인 상인들과의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연지시장 개발이 단순한 시설 현대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읍시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화수 시장은 "용역 과정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내실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